

# 대한상의 브리프

하상선 (주)에코아이 탄소배출권사업본부장



제134호 2020년 10월 26일



편집자주

2021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호에서는 3차 계획기간의 주요 변경 사항과 기업들이 꼭 유념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배출권거래제,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5년)이 시작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하고,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 내에서 배출 활동을 하되 배출권이 부족하거나 남으면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5년 시작된 배출권거래제는 1차 계획기간(2015-17년)을 거쳐 현재 2차 계획기간(2018-20년)이 진행 중이다.

1·2차 계획기간은 3년 단위였으나, 3차부터는 5년 단위로 본격 운영된다. 또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내년부터 변경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유념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3차 계획기간 주요 변경사항

#### ① 계획기간의 확대

3차 계획기간부터는 계획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계획기간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은 모두 금년말 사전에 할당되며, 1·2차 계획기간에 비해 배출권의 이월과 차입을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한 배출권 관리가 필요하다.

#### ② 할당대상 업종·사업장 확대

3차 계획기간부터는 건설, 교통(철도·여객·화물·해운) 업종 등이 새롭게 편입되면서 대상 업종이 62개



### [ 배출권거래제 2차 vs 3차 계획기간 비교 ]

구분	2차(2018-20년)	3차(2021-25년)
계획기간	3년	5년
대상 업종	62개	69개
대상 기업	589개社	685개社
유상할당 비율	3%	10%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	① 비용발생도 ≥ 30% ② 무역집약도 ≥ 30% ③ 비용발생도 ≥ 5% & 무역집약도 ≥ 10%	비용발생도 × 무역집약도 ≥ 0.2%
무상할당 업종	36개	28개
상쇄배출권 사용한도	10%	5%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에서 69개로, 대상 기업은 589개社에서 685개社로 늘어난다.

할당대상 사업장도 확대된다. 2차 계획기간까지는 ‘연평균 2.5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만 배출권 할당대상이었지만, 3차부터는 ‘연평균 2.5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기업의 모든 사업장’이 할당대상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5만톤보다 적은 사업장까지 온실가스 관리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 ③ 유상할당 비율 확대

유상할당 비율이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의 배출권 할당량 중 유상할당 비율 10%를 뺀 나머지 90% 배출권을 사전 할당 받는다. 차감된 10% 유상할당량은 정부가 매월 1회 경매를 통해 판매한다.

유상할당 비율이 높아진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하는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 구매비용을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

### ④ 무상할당 업종 축소

2차 계획기간부터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무상할당업종으로 선정됐다. 해당 기업들은 할당량을 100% 무상으로 받는 대신 유상할당 경매에는 참여할 수 없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무상할당업종을 선정하면서 대상업종이 기존 36개에서 28개로 축소된다.

무상할당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자동차, 자동차 관련 제품, 기계, 절연선 및 케이블, 가스, 담배 제조업 등이다.

### ⑤ BM 할당방식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

정부가 기업의 할당량을 결정하는 방식에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GF(Grand-Fathering) 방식과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하는 BM(Benchmark) 방식이 있다.

이 중 BM 방식은 설비효율이 좋은 기업은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BM 할당방식 적용대상 업종은 1차 계획기간 3개, 2차 계획기간 7개였지만, 3차 계획기간에는 12개로 확대된다.



### [ BM 할당방식 적용업종 확대 추이 ]

계획기간	BM 할당방식 적용업종
1차 (2015-17년)	3개 (정유, 시멘트, 항공)
2차 (2018-20년)	1차 + 4개 (발전, 지역냉난방, 산업단지/집단에너지, 폐기물)
3차 (2021-25년)	2차 + 5개 (철강, 석유화학, 건물, 제지, 목재)

### ⑥ 상쇄배출권 사용한도 축소

배출권거래제에는 상쇄제도(offset)가 있다.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가정 등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외국에서 감축하는 경우, 이 외부 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을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구매해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사용이 가능하다.

2차 계획기간까지 기업의 상쇄배출권 사용한도는 10%였고, 이 중 해외에서 획득한 상쇄배출권은 5%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3차 계획기간부터는 상쇄배출권 사용한도가 5%로 축소되고 국내와 해외의 구분이 없어진다.

상쇄배출권 사용한도가 축소되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 ⑦ 제3자 거래 참여

2차 계획기간까지는 할당대상 기업들에 더해 공적 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만이 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다. 3차 계획기간부터는 금융기관·증권사·개인 등 제3자의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다.

제3자 거래 참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성이 커질 우려도 있다. 기업들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배출권 위탁관리를 검토해 볼 수 있다.

## 기업의 대응 방안

### ① 5년간의 배출권 관리계획을 수립하라

계획기간이 늘어난 만큼 5년 동안 기업의 예상 성장률과 시설의 신·증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5년간 배출권 과부족을 분석해야 한다.

만약 배출권이 부족하다면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검토하거나 배출권 확보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 계획기간 내에는 자사의 차기년도 배출권을 차입해 우선 사용할 수도 있다.

반대로 배출권이 남는다면 배출권 이월과 판매전략이 필요하다.

### ②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적극 검토하라

3차 계획기간의 제도 변경내용을 종합해 보면, 유상

할당 비율이 확대되고, 무상할당 업종은 축소되는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계획기간 확대와 BM 할당방식의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투자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유상할당 비율, BM 할당방식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3차 계획기간부터라도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③ 배출권 가격 변동성에 대비하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만원 수준이던 배출권 가격이 불과 4개월만인 8월에 2만원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다. 배출권 매매 시점에 따라 크게는 2배 이상의 비용차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 배출권 가격이 떨어졌지만, 코로나 영향이 해소되는 시점에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출권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

### ④ 상쇄배출권을 활용하라

장기적으로 배출권 부족이 예상되는 기업은 안정적인 배출권 확보전략으로 상쇄배출권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부감축실적은 3~5년 단위의 장기계약이 가능하며 고정가격이나 가격범위 설정, 시장가격과 연동 등 다양한 옵션으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용부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3차 계획기간부터 외부감축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국내·외 경제지표

2020년 10월 26일 기준

##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

	2018	2019 <sup>(E)</sup>	IMF		OECD	
			2020 <sup>(P)</sup>	2021 <sup>(P)</sup>	2020 <sup>(P)</sup>	2021 <sup>(P)</sup>
한국	2.7	2.0	-2.1	3.0	-1.2	3.1
세계	3.6	2.9	-4.9	5.4	-6.0	5.2
미국	2.9	2.3	-8.0	4.8	-7.3	4.1
중국	6.6	6.1	1.0	8.2	-2.6	6.8
일본	0.8	0.7	-5.8	2.4	-6.0	2.1
EU	1.9	1.2	-10.2	6.0	-9.1	6.5

\* E -잠정치(Estimate) / P -예상치(Projections)

## 2. 환율·유가<sup>1)</sup>

(단위 : 원(환율), 달러(유가))

	2017	2018	2019	'20.5월	6월	7월	8월	9월
원/달러	1,131	1,100	1,166	1,229	1,210	1,199	1,187	1,179
원/엔(100엔)	1,009	996	996	1,146	1,125	1,122	1,120	1,116
원/위안	167.5	166.4	166.4	172.5	170.7	170.9	171.1	173.0
원/유로	1,276	1,299	1,299	1,339	1,362	1,373	1,403	1,391
유가(Dubai)	53.2	69.7	63.5	30.5	40.8	43.3	44.0	41.6

## 3. 산업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17	2018	2019	'20.5월	6월	7월	8월	9월
산업생산	2.6	1.6	0.6	-5.6	0.7	-1.5	-3.4	-
소매판매	1.9	4.3	2.4	1.7	6.4	0.5	0.3	-
설비투자	14.4	-3.6	-6.2	3.5	13.6	8.1	-1.8	-
수출	15.8	5.4	-10.4	-23.8	-10.9	-7.1	-10.1	7.7
수입	17.8	11.9	-6.0	-21.0	-11.2	-11.6	-15.8	1.1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